세정수필

동료들과 함께 하는 등산의 묘미

김 조 연
대구광역시 중구청 세무과

"등산하면 누구나 하는 가장 보편적인 운동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장황한 글까지" 하면서 조소의 눈길을 보낼수도 있다.

그러나 등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매력이 분명히 숨어있다. 험준하기 이를데 없는 바위산이나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능선을 몇시간씩 사력을 다해 걷다보면 고달픈 인생항로를 경험하는 것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인내란 무엇이고 인생역정을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된다. 특히 눈만 뜨면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직장동료들과의 산행에서 느끼는 끈끈한 동료애는 어떤 운동이나 여가선용에서도 맛볼수 없는 것이기에 최근 몇 년동안 활동해 왔던 우리구청 세무직원 등산팀을 소개할까 한다 .

우리구청 세무직원들의 등산역사는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필자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은 적은 비용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들간 친목도모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일반인들도 많이 한다는 등산이었다.

지난 3여년 동안의 등산중 가장 기억에 남는 등반을 꼽으라면 지난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진 어느 일요일, 직장 동료들과 대구 근교 비슬산에 올랐던 때인 것 같다. 한여름에 무슨 뚱딴지 같이 겨울얘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온 몸에서 비지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한 겨울의 혹한과 폭설 이야기는 한줄기 시원함을 느끼게 할수 있지 않을까.

무릎까지 푹 빠질정도로 눈이 유난히 많이 쌓였던 그 날.

능선과 산록은 환상의 설화가 만발, 산입구에 도착한 우리 등산팀 모두의 얼을 빼

놓았다. 하루 30cm 가량의 엄청난 폭설이 내려 온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어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눈이었지만 비슬산 자락을 뒤덮고 있는 소나무 가지위에 듬뿍 쌓인 눈은 하얀 눈사탕처럼 청결하고 무척 소담스러워 보였다.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것은 머리위에 곧바로 흩뿌렸다.

산중턱에 오르니 설한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허공에는 엄청난 눈구름이 거센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우리 모두는 방한용 등산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온지라 모두가 힘들게 산중턱에 오른 상태였다. 산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를 이용해서 올라야 하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은 로프가 폭설로 덮여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평소 바위를 오를 때 밟았던 발버팀홈은 온데간데 없었다. 갈 때 면장갑만 하나 달랑 가지고 간지라 눈의 찬기가 면장갑으로 스며들어 마치 동상에 걸린 손처럼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동료들은 이를 무릅쓰고 하나 둘 바위를 오르기 시작했다. 간신히 정상에 오르니 세차게 부는 바람에 눈은 더욱 하얗게 푸른 하늘을 뒤덮었다. 정상 산불감시초소에서 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마시는 한잔의 커피맛은 얼마나 좋았던지. 눈이 무릎까지 푹 빠지는 험난한 길을 두어시간만에 가까스로 정상에 올라 마시는 따뜻한 커피, 그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맛있고 향기로울수 있을까.

지난 6월중순에는 직원 십여명이 1박2일간 지리산을 다녀왔다.

지리산, 백두대간의 머리로서 한반도 모든 산맥을 이끄는 종주의 자리에 우뚝 서 있으면서 찾는 사람들이 그 장대함에 취하게 만들고, 때론 자애롭고 친화적이다가 순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고 무자비하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는 산. 그 엄청난 흡인력과 치유력을 지니고 매년 수백만명을 품으로 끌어들여 스트레스를 풀게하고 안식을 주는 지리산은 참으로 산중의 산이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지리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하는가 싶었다.

우리 대부분은 한두번 지리산을 다녀온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지리산 등산은 예전의 산행과는 사뭇 달랐다. 전에는 친구 한두명과 단지 지리산이 어떤 산인가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다녀온 등산이었다면 이번 산행은 산장에서 1박을 하는 장거리 등반이기도 했거니와 산장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놓고 맛깔나는 소주를 곁들이면서 사무실 돌아가는 이야기며 세상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장이기도 했다. 그날 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을 밤, 가지고 간 술을 모두 마시고 부족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등산객한테 구걸아닌 구걸을 했던 생각이 난다.

지금도 지리산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그 장대한 산자락과 하늘과 구름이 어우러진 전경이 눈에 아른거려 다시한번 가고싶은 충동이 솟구친다.

이외에도 3여년동안 다닌 산은 수없이 많다.

장엄하면서도 완만한 산등성이와 끝없이 펼쳐지는 운해가 수려한 계곡과 어울려 장

관을 이루면서 이른 여름이면 철쭉, 겨울에는 설화로 새옷을 갈아입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소백산(인근의 풍기인삼막걸리는 최고의 술로 맛이 일품이다), 청량하기 그지없는 계곡과 장쾌한 능선, 전형적인 육산의 아름다움, 그리고 넓은 산자락과 만만치 않은 높이를 갖고 있어 산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덕유산 등등.

지금은 한여름이다. 여름 산행도 어느 계절 산행 못지않게 풍치가 있고 멋이 있다. 우거진 숲은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 속 신선한 공기에 녹아있는 음이온은 폐부에 들어가 힘의 원동력이 되는 혈액을 역동케 한다. 잘자란 나무들 녹음사이로 비쳐들어오는 햇빛은 뭇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과 등산팀은 매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모여 산에 오른다. 준비해가는 것이라곤 마실 물과 간단한 과일이 전부지만 산정상에서 허기진 상태에서의 먹는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 다음주 일요일은 어느 산으로 갈지를 의논하면서 말이다.

매주 오르지 않고는 못살게 하는 일종의 중독물질이 산에는 있다. 수요일만 지나면 주말이 기다려지고 같이 산행할 동료들이 반가와진다.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한 산행도 두어시간 지나면 가뿐함과 상쾌함으로 바뀌고 하산할 즈음이면 그것이 절정에 이른다.

세무업무는 꼼꼼히 일해야 하기에 일반 행정업무 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때문인지 한 때는 늦은 밤까지 일하고 집에 갈 때에는 으레 한잔의 술로 하룻 동안 쌓였던 피로를 해소하기도 했었다.

이런 일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이지만 최근에는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풀기 위해 마라톤이나 헬스를 하는 동료들을 많이 볼수 있다 . 그러나 필자는 자칭 등산메니아의 한사람으로서 내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등산을 적극 권하고 싶다. 특히 직장동료들과의 등산을 말이다.

다음주도 우리과 등산팀은 언제나 그랬듯이 산에 오를 것이다. 산은 마음의 안식처요 건강을 지킬수 있는 최고의 헬스장이기 때문이다.

(개인홈페이지 : http://jibanse.hompy.com)